

# 아미타 만다라, 영월 법흥사에 조성된다

## 남북 평화통일,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국내 5대 적멸보궁 중 한곳인 영월 법흥사가 세계 일화를 염원코자 티베트 아미타 만다라를 조성한다.

영월 법흥사(주지 도완)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아미타 만다라 불사를 추진한다. 이번 불사는 자장율사의 법흥사 창건정신을 계승해 남북평화통일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발원하고자 마련됐다.

법흥사는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국가 통일과 융성, 백성 평안을 위해 '흥령사'라는 명칭으로 창건한 사찰이다.

이번에 불사가 진행되는 티베트 만다라와 인도 전통회화는 우주와 우주의 조화, 질서를 상징한다.

법흥사는 9월 4일까지 티베트 모래 아미타 만다라 불사를 회향하고 오방불 봉안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법회는 티베트 스님 9명의 집전 하에 만다라전에서 티베트 전통의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만다라는 108개 병으로 나눠 회향해 불자들과 나눌 계획이다.

법흥사는 국내 유일의 만다라 전각도 보유하고 있다. 2003년 티베트 스님들이 법흥사에서 만다라 법회를 하며 기념으로 지은 전각이다. 이후 2007년 티베트 법회를 여는 등 정기적으로 법회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조성되는 만다라는 아미타 만다라로 국내에서는 처음 조성되며, 조성 전 과정을 불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법흥사는 2018년까지 경내에 만다라를 전시하며, 9월 1일에는 만다라 시연과 함께 티베트 영산제도 봉



만다라를 만드는 티베트 스님의 모습. 불법세계를 상징하는 만다라는 티베트에서는 제작 자체가 수행으로 평가받는다.

9월 1일 만다라 제작 시연·영산제 봉행

9월 4일 법흥사 만다라전에 봉안

2004년 이후 8년 만, 아미타 만다라 최초

행한다.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은 "만다라는 본래 우주와 우주의 조화, 질서를 화하로 상징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인도와 티베트의 전통불교화하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미타불을 모시는 아미타 만다라를 조성하는 만큼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033)374-9177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아미타 만다라는?

만다라는 티베트의 불교미술을 대표한다. 만다라는 산스크리트어로 Manda(본질)라는 어간과 La(소유, 성취)라는 접미사로 이루어진 말로서 우주의 본질 또는 생명의 진수를 뜻한다.

만다라는 원래 대지위에 단을 쌓고 신의 강림을 기원하기 위하여 왕궁모형의 성역공간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중 아미타 만다라는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하며 아미타불 주위의 관음, 미륵, 허공장, 지장의 8보살을 배치해 중추부를 구성한다. (8대보살만다라경)에 근거한 것으로 이 구품(九品)의 아미타를 중심으로 제2원, 제3원에 많은 불보살을 배치한다.

## 독일 대학생들, 한국불교 "Wunderbar!(원더풀)"

독일의 대학생들이 비구니 전문 교육도량인 청도 운문사(주지 일진)에서 한국불교문화와 전통을 체험했다.

독일 '본대학'의 동양·아시아 학부에 재학 중인 26명의 학생들은 지난 8월 15-16일 이틀 동안 청도 운문사에서 템플스테이에 동참했다.

템플스테이에서는 법교의식과 저녁예불 등 불교의식 등이 진행됐다. 또 산내 암자인 사리암·문수선원 참배 등이 진행됐다.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카림(35) 씨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자연 속 사찰에서 생활하며 긴장도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한국의 참 맛은 여유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15일에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과 안동 선비마을 등 영남지역 불교와 유교문화를 돌아봤다.



독일 학생들이 운문사 사리암 참배 후 밝게 웃고 있다.

윤선영 본대학 세종학당장 교수는 "독일 '본대학'은 2011년부터 '한국문화여행'이라는 주제로 한국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한국에 전공을 선택하고 독일 타대학 학생들도 참가를 신청하는 등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대구 비슬산 대견사지 발굴 개토제 봉행

일제에 의해 강제 폐사된 비슬산 대견사지 복원이 광복절을 맞아 본격화 됐다.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와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8월 15일 비슬산 대견사지 현장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개토제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을 비롯해 김문오 달성군수와 달성군 관련부서장 등 120명이 참석했다.

대구시 달성군과 동화사는 폐사 당시 사찰원형을 복원한다는 방침으로 대웅전, 요사채, 종무소, 산신각을 10월 착공해 2013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대견사지 발굴 조사는 계림 문화재연구원 맡아 9월 말까지 진행된다.

비슬산 정상에 위치한 대견사지는 신라 고찰로 대한제국 당시 국가 비호 사찰로 지정되자 일제가 강제로 폐사시켰다. 현재 3층 석탑과 마애선각 불상, 동굴대좌 등만이 남아있다.

한편, 동화사는 법화경을 주제로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법화산림법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동화사는 8월 22일 동화사 통일대전에서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을 법사로 첫 법회를 열고 8월 31일까지 10명의 스님을 초청해 법화산림법회를 봉행한다.

또 법화경 7만자를 들은 새긴 국당 조성주 선생의 전각 법화경 '불광' 전도 9월 16일까지 동화사 선 체험관에서 열린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범어사, 동명대에 장학금 1억원 지원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는 8월 17일 범어사 주지실에서 설동근 동명대 총장에게 장학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우수신입생 모집과 재학생 학습의욕 고취 등에 사용된다. 이날 장학

금 전달은 지난 2009년 범어사와 동명대가 체결한 불교문화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협약에 따른 것이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동명대 불교학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 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산속 깊은 사찰에서도 물을 사 마셔야 할 것이다. 물관리를 위해 물그릇 사용에 주의를 요정하고 있는 경기도 보사찰

### 물그릇이 깨끗해야 물맛도 좋다

수년전만 해도 오래된 절에 가면 어김없이 좋은 샘이 있어 절마다 독특한 물맛을 볼 수 있었다. 샘물은 부처님께 올리는 청정수로 쓰였고, 스님들이 차를 우려내는 차물로 쓰였으며, 음식물을 장만하기 위한 식수로 쓰였다.

절터가 좋다는 말은 장풍득수(藏風得水)하기 바람직하다는 뜻이니, 물이 좋고 풍부하지 않은 곳은 애당초 좋은 터가 될 수 없었다. 풍수지리를 보면, 좋은 물과 좋지 않은 물이 있다 하지만 산사에서 만나는 물은 절에 사는 모든 이들과 절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지 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샘물이 좋은 절은 이름도 특이하다. 옥천사, 정수사, 감로사, 약천사 등 절 이름만 들어도 그 절의 물맛이나 물의 성분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찰의 샘물이 아직까지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절의 스님들이나 신도들의 지극한 관리덕분이며, 자연을 해치지 않은 공덕 때문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샘물이 아예 없어진 경우가 많고, 샘이 있어도 물이 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면 알고도 남음이 있다.

샘물을 제대로 관리하여 청정한 물맛을 유지하는 절을 보면 하나같이 샘을 원래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샘 주변까지도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샘은 물론 샘 주변까지도 하루에 몇

번씩 청소하여 청결함을 유지한다. 심지어는 샘을 지키는 당번을 정하여 함부로 샘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도 많다.

절에 가서 그 샘물이 청정한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샘물을 마시는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정돈하고, 관리하는 지를 보는 것이다. 시커먼 때가 앉은 플라스틱 바가지, 아무렇게나 던져 놓아 무질서한 플라스틱 바가지를 보면서 어떻게 그 샘물이 깨끗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일본사찰의 샘이나 수조에서 사용하는 물그릇들은 보통 스테인레스나 양은을 재료로 만든 것이거나 조롱박을 정성스럽게 말려서 만든 것, 혹은 대나무 통으로 만든 것들이다. 이 그릇으로 물 한 잔 받아 마시고 싶은 것은 재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항상 정갈하게 닦고 깔끔하게 관리하기 때문인 것이다.

물이 아무리 좋으면 뭘 하겠는가. 그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얼마가지 않아 강원도 깊은 절에서도 알프스에서 취수하여 플라스틱 통에 담은 물을 마셔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찰에서도 깨끗한 물을 지켜내는 캠페인을 벌일 때가 왔다. 그것은 더 이상 미뤄야 할 일이 아닌 시급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